

##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90년

최수남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된 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90년의 조선청년운동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며 조선청년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애국헌신으로 조국땅위에 자랑높은 주체의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청년운동은 수령님들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강국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입니다.》

조선청년운동은 그 개척과 시원, 전통에 있어서나 그 존재와 강화발전, 특출한 공적에 있어서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청년운동이다.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90년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척되고 강화발전되어온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이다.

청년운동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라는 주체적인 견해와 립장을 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공리공담하면서 《령도권》싸움만 하고있던 민족주의운동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의 본질적약점을 꿰뚫어보시고 처음부터 그들과는 다른 길로 나아갈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E.C》를 결성하신데 이어 주체 16(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단순한 청년조직이 아니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 세대들이 등장하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닌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닌 혁명적전위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일대

양양을 위한 과업이 나서고있던 1930년대 중엽 조선반일청년동맹을 새롭게 조직하시고 모든 반일청년동맹원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항일대전의 나날 주체적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는 구호밑에 주체35(1946)년 1월 17일 공청을 민주청년동맹으로 개편하여주시였다.

민청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단일한 대중적청년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계급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던 시기인 주체53(1964)년 5월 조선민주청년동맹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청년들을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부강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청년동맹을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조선청년들의 위력한 전투조직으로 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청년들을 혁명의 교대자, 계승자로 교양 육성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모든 청년들이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이 지닌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견결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혁명을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도록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중시의 정책을 일관하게 베푸시여 청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나라일이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주의농촌에 진출한 청년분조원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회답서한을 보내 주신데도, 그들이 일하는 포전에 들리시여 청년들의 흠뻑은 손을 잡아주시며 사랑의 기념 사진까지 찍어주신데도 뜨겁게 어려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우환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사회주의를 좌절시키는데서 앞장섰지만 우리 나라에서만은 청년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 계승자로 훌륭히 자라나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자랑스런 현실이 펼쳐질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시원이 열리던 때로부터 항일전의 나날을 거쳐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에 걸쳐 우리 청년들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을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고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웠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지어 부른 혁명의 전위도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열혈청년들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 날아오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나서며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켜싸운

리권행을 비롯한 경위대원들도 총잡은 청년들이었다.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청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제반 민주개혁수행과 보통강개수공사와 같은 대자연개조사업,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에 떨쳐나섰으며 1950년대 조국수호전의 나날에는 불타는 고지와 전호마다에서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며 결사전으로 나갔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적함으로 육박하고 불뿜는 적의 화구도 서슴없이 막았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우리 청년들은 전후의 어려운 시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의 앞장에 섰으며 해주-하성사이 200리 철길공사도 단 75일동안에 끝내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청년들은 참된 혁명전위로, 조선로동당의 강력한 정치적후비대로 자라나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를 펼칠수 있었다.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90년의 력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승장구하여온 자랑스런 년대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시로선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가장 혁명적인 청년운동으로 되게 하시였다.

10대의 나이에 벌써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민청단체의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는 나날에 독창적인 수령론에 기초하여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청년운동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과 세계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주시고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하며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투쟁이 첨예화되고있던 1990년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이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수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들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와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날을 청년절로 제정하여주시는데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5(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도록 하시였으며 혁명의 해불봉을 안겨주시어 청년동맹이 영원히 아버지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졌으며 동맹안에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체제와 규율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었다.

청년들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정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자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제건설목표를 내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발기하시여도, 나라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설계하시여도 언제나 혁명성과 전투력, 단결력이 강한 우리 청년들을 믿으시고 온 사회에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발기하시면서 청년들이 총돌격전의 기수가 되고 영웅이 될것을 호소하시였으며 그후 어렵고 방대한 북부철길건설과 청년영웅도로건설을 통채로 청년들에게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으로, 당의 요구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비상한 혁명적열정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지닌 청년전위로 자라날수 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농촌으로, 탄광으로 달려가 청춘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쳤다.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도 당의 명령지시를 정해진 날자와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내야 한다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에 기초한것이였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의 투쟁로정은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청년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힘과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청년들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정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거연히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도 뜨겁게 어리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일 어렵고 힘든 발전소건설을 청년들에게 맡겨주시고 선군령도의 길에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고 그들의 영웅적투쟁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보다 큰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고무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진 추위와 난관을 이겨내고 부족되는 자재와 물자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으며 결사전을 벌려 언제를 한치한치 쌓아나갔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으며 나라와 민족마다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조선의 청년들처럼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청년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신 청년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을 한 청년들은 일찌기 없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목숨바쳐 지켜나가는 500만의 총폭탄, 90년대의 리수복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히 옹위되고 조선청년운동은 주체의 한길을 따라 계속 줄기차게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90년의 력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에 의하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 청년들에 대한 우리 당의 영원한 믿음이 담겨져있는 청년강국이라는 시대어로 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지위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0년대의 첫 청년절을 온 나라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우리 당의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를 순결하게 이어받아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전위투사, 선군시대 청년영웅으로 자라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히 청년동맹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당창건 70돐까지 선군시대 청년들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주시고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주시였다.

발전소의 이름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고 준공식에까지 나오시여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구호를 제시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청년들이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을 지니고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주체105(2016)년 8월에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불패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떨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청년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청년동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된 강철의 청년조직으로 비상히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고 수백만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키우는 자양분이다.

백두대지에서 치렬한 백열전을 벌려 청년돌격대원들이 창조한 영웅청년신화와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는 당중앙이 결심하면 물과 불속에도 뛰어들어 기어이 실천하고야마는 청년동맹의 영웅적기상과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백두청춘들이 발휘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당중앙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이며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공격적인 정신이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정신육체적으로 단련되었으며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천하무적의 청년대군으로 자라났다.

20살 꽃나이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혈육의 정으로 키우고있는 《치녀어머니》가 태어나고 수많은 청년들이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정든 도시를 떠나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사회주의협동벌, 수산전선과 새로운 개발지들에 달려가고있는 자랑스러운 현실,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에 자원해가며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주고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것을 청춘의 값높은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는 미풍선구자들이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는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청년중시, 청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청년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건결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청년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실마리어 청년운동, 영웅청년정신